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金 正 澤*

국문 초록

크리스찬 영성의 관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영적 씨앗으로써 누구나 그 씨앗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 자기실현(自己實現) 또는 개성화과정은 융의 중심사상으로, 개인적 성격의 발달을 지향하는 분화의 과정이다. 달리 말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성신학적인 견해와 분석심리학적 견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연방기술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열렸던 특강 시리즈에서, 융은 동양과 서양의 전형적인 상징과 변환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요가와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그리고 연금술에 대해 강의하면서, 서양을 대표하는 인간 정신의 변환의 도구로써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융의 견해를 중심으로 ‘영신수련’을 개성화의 과정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를 조명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심 단어 : 이나시오 · 영신수련 · 분석심리학.

들어가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자신의 본성(本性)을 최대한으로

접수일 : 2010년 3월 26일 / 심사완료 : 2010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8일

* 융 학파 정신분석가, 서강대학교

펼쳐나가는 것이다. 인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주위의 자연처럼 자동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꽃피울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만 한다. 크리스찬 영성(Christian Spirituality)의 관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영적 씨앗으로써 누구나 그 씨앗을 받아시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본모습을 찾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실현(自己實現) 또는 개성화과정(individuation process)은 융의 중심 사상으로, 개인적 성격의 발달을 지향하는 분화의 과정(process of differentiation)이다.¹⁾ 달리 말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부영(2000)은 인간의 자기실현은 바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은 개개인의 삶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²⁾ 그렇다면 이는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성신학적인 견해와 분석심리학적인 견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연방기술연구소(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열렸던 특강 시리즈에서, 융은 동양과 서양의 전형적인 상징과 변환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요가와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³⁾ 그리고 연금술에 대해 강의했다.⁴⁾ 융(1962)은 자신의 회상록에서 “1939년 나는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의 ‘영성(靈性)훈련’에

1) Jung CG(1921) : Psychological Types, Definitions. C.W. 6,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1990), parag.757.

2)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29.

3) 이나시오의 ‘Spiritual Exercises’는 영적인 훈련, 즉 영적 수련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Spiritual Exercises’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한 예수회의 고(故) 윤양석 신부는 이를 ‘영신수련’으로 번역하였다. 이 명칭은 서구어의 ‘Spirit’이 ‘영과 정신’을 포괄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영신(靈神)’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로써 수련의 주체를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융의 자서전 번역본(‘回想, 꿈 그리고 思想’, Jung CG 집문당, 1989)에서는 ‘영성(靈性)훈련’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여기서는 ‘영신수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영성훈련’, ‘영성수련’ 등의 용어가 묵상, 기도 등의 영적인 수련이나 훈련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 Jung CG(1939) : Modern Psychology(Second Edition), Vol. 3-4, Notes on Lectures, Zurich(1940), pp.149-264.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같은 시기에 나는 '심리학과 연금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⁵⁾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1939년 여름세미나 후반부와 1940년 초까지의 겨울세미나에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스무 차례의 긴 강의를 통해 융이 전하고자 한 핵심은 무엇일까? 베커(Becker, 2001)는 융이 그의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이 만났던 환자들의 정신적 성장과 통합, 그리고 변환의 과정 안에서 그가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꿈과 적극적 명상(active imagination)의 과정을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주제들과 비교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⁶⁾으로 보았다. 융(1939)은 자신의 세미나에서 '개성화의 과정'이란 큰 주제 아래 동양의 요가 원전을 자세히 분석한 후, 서양을 대표하는 인간 정신의 변환의 도구로써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자세하게 펴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융의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심리학적 함의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

이냐시오(Ignatius) 성인은 1491년 가스띠야(Castilla) 왕국의 기푸스코아(Guipuzcoa) 지방에 있는 바스크(Basque)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세 남매 중 막내였다. 가문의 영지와 성채가 아스페이트리아(Azpeitia) 읍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 지명이 바로 로올라(Loyola)였다. 이냐시오 성인의 본래의 이름은 이니고 로페스 데 로올라(Inigo Lopez de Loyola)로 알려져 있다.⁷⁾ 이냐시오라는 이름은 그가 성장한 후 파리에서 지내던 시절, 초대 교부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St. Ignatius of Antioch)

5) Jaffe A Ed(1962) : 回想, 꿈 그리고 思想(이부영 역, 1996). 집문당, 서울, p239.

6) Becker KL(2001) : Unlikely companions : CG Jung on the Spiritual Exercises of Ignatius of Loyola, MPG Books Ltd., England, Bodmin, p47.

7) Olins JC Ed(1992) : The autobiography of St. Ignatius Loyola,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p4.

융은 1939년 취리히에서 열린 여름세미나에서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성인의 이름을 Don Inigo Lopez de Recalde로 소개하고 있다(Modern Psychology Vol 4, p165). Becker(2001, p58~60)에 의하면 융은 1913년에 베를린에서 출판된 Philipp Funk의 'Ignatius von Loyola'라는 책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신심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냐시오는 어린 시절부터 기푸스코아 지방의 엄격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 자신의 신앙에 충실한 청년이었다고 휴고 라니(Hugo Rahner, 1935)는 전하고 있다.⁸⁾ 이러한 사실은 이냐시오가 그 당시의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이미 하느님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신앙인으로 성장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청년 이냐시오는 젊은 궁정조신이자 혈기왕성한 기사였으며 스페인 국왕에 봉사하는 군인이었다. 이냐시오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팜플로나 전투에서 수비대의 선봉에서 싸우다가 1521년 5월 20일 프랑스군의 성채 포격에서 중상을 입었다.⁹⁾

전투가 끝난 뒤 프랑스군은 그를 로올라에 있는 가족에게 후송하고, 그는 그곳에서 고통스럽고도 힘들게 회복기를 보내야 했다. 늦여름이 다가오면서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가자 그는 평소에 즐겨 읽던 무협소설 대신 종교서적 몇 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는 작센(Saxony)의 루돌프(Ludolph)라는 독일 카르투스시안(Carthusian) 회원이 쓴 '그리스도전'이 있었고, 다른 한 권은 13세기 도미니코 회원 자코보 데 보라진느(Jacope de Voragine)가 지은 '성인열전'이라는 성인들의 행적집이 있었다.¹⁰⁾ 용(1939)도 그의 세미나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냐시오는 이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에 매료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전투 본능을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악과의 싸움에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마침 다리부상으로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내부의 적으로 그 방향이 돌려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냐시오는 아직까지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귀부인에 대한 봉사의 욕망 때문에 큰 갈등에 휩싸였었지만 이후에는 하느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용은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한 인간을 온통 뒤흔들어놓은 격렬한 갈등이었으나 마침내 이냐시오는 '영적인 기사(a spiritual knighthood)'가 되려는 구원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드디어 '하

8) Rahner H(1953) : The Spirituality of St. Ignatius Loyola, The Loyola University Press, Chicago, pp17-18.

9) Olins JC(1992) : 같은 책, pp5-14.

10) Rahner H(1953) : 같은 책, p24.

느님의 기사(the Knight of God)'가 된 것으로 용은 이해하고 있다.¹¹⁾ 그렇다면 무엇이 것처럼 한 인간을 온통 뒤흔들어놓은 격렬한 갈등이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나시오는 오로지 자아(ego)의 힘에 둘러싸여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하는 데에만 골몰해 있었으며 자신의 내부와의 접촉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달리 말해서 극단적인 외향화(外向化)와 외적인 활동에 사로잡힌 상태로 자신의 페르소나(persona)에만 심취해 있었다. 이나시오의 자서전¹²⁾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스물여섯 살 때까지만 해도 그는¹³⁾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붙잡는 사람이었다. 명성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크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는 군사훈련을 즐기고 있었다.¹⁴⁾

팜플로나에서의 다리 부상으로 로올라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시기는 그때까지 외부로만 쏠려있던 자신의 에너지를 내부로 돌려서 내면과의 접촉을 가져온 참으로 중대한 시기였다. 달리 말해 이나시오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내향화(內向化)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당시 그에게 전해진 두 권의 책을 읽고 명상하는 가운데 이나시오의 전격적인 회심이 시작되었다. 회복기에 든 그에게 지금까지 알아왔고 꿈꾸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과 성공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어렴풋이 비쳐왔다. 그는 두 갈래 낭만적 이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번민하였고, 그 자신의 말대로 '자기를 망설이게 하는 영(靈)들의 차이점을 깨닫기'¹⁵⁾ 시작했다. 그가 세상사에 대한 온갖 공상에 빠져있었을 때는

11) Jung CG(1939) : 같은 책, p166.

12) 이나시오 성인의 자서전(autobiography)은 동료 회원들, 특히 예로니모 나달(Nadal)의 간청에 못이겨 젊은 포르투갈인 예수회원인 루이스 곤살레스 다 까마라(Camara)에게 자기의 삶과 사건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를 들은 그대로 까마라가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을 자서전, 혹은 전기나 회상록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예수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이나시오 성인의 '자서전'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3) '자서전(autobiography)'이란 번역용어를 받아들일 경우에 '그는'을 '나는'이라 표현해야 하지만, 영문으로도 'he'로 기술되어있고 한글 번역본에도 '그는'이라 번역되어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도 그대로 '그는'으로 번역하기로 하겠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14) Olins JC(1992) : 같은 책, p21.

15) Olins JC(1992) : 같은 책, p16.

당장에는 매우 재미가 있었지만 얼마 지난 뒤에 곧 싫증을 느껴, 그런 생각을 떨치고 나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황폐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일, 맨발로 걸으며 초근목피로 연명해가는 성인들의 고행을 자신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커다란 위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끝낸 다음에도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한 여운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자기를 동요시키고 있는 두 정신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느님 사랑을 위해 성인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행업을 자신도 이루기 위하여 속세의 욕망과 야심을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속죄하는 순례자가 되어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냐시오는 성서(聖書)와 성인전을 통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다리 부상 때문에 그때까지 외부로만 쏠려있었던 자아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침잠해서 자신 안의 원형적인 힘(archetypal power)과 만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형적인 힘은, 융(1950b)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self)의 상징으로서의 그리스도’¹⁶⁾인 것이다. ‘원형(archetype)’은 바로 인간 심혼의 뿌리이며, 의식이 내면과의 접촉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런 원형적인 힘과의 접촉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실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과의 접촉에서 이냐시오가 체험했던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 사이의 갈등이 바로 융이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인간을 온통 뒤흔들어 놓은 격렬한 갈등’이었고, 이러한 갈등의 극복을 통해서 이냐시오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내면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즉 자기(Self)의 상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순례자’로서의 삶의 길을 시작한 것이다.

이냐시오에게 ‘위로부터’ 온 존재로서의 하느님 체험은 분석심리학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삶을 살던 한 젊은이가 전투에서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자신의 내부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내부의 원형적인 힘에 의해 자기실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식이 내부와의 접촉을 단절한 채 극단적으로 자아 중심의 삶만을 살아갈 때 무의식의 원형적인 힘이 작용해서 새

16) Jung CG(1950b) : Aion, Christ, a Symbol of the Self. C.W. 9-2, Pantheon Books, New York(1959), parag.70.

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변환의 시기에 이냐시오는 또한 자기 내부의 중요한 아니마 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냐시오의 자서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가 이 경건한 소망에 젖어들면서 과거의 생각은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이 열망은 어떤 환상(Vision)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어느 날 밤, 깨어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았다. 이 환상에서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¹⁷⁾

아니마(Anima)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상(女性像)으로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과 원형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의식이 모르는 것을 무의식의 심혼인 아니마는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월한 지혜이며, 직관이고 통찰력이다. 또한 아니마는 영감(inspiration)과 같은 것이다. 영감이 떠오르면 비밀은 밝혀지고 마음이 편해지지만 영감이 막혀버리면 원초적 문자, 즉 원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자를 해독할 수 없다. 남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의 보배를 발견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¹⁸⁾ 이냐시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의 환상을 본 후, 무엇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즉 자신의 심혼인 아니마의 도움으로 새로운 통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냐시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난날의 생활 전체, 특히 육(肉)에 따른 행실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전에 머리속에 그리던 모든 상상들이 말끔히 씻겨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¹⁹⁾고 고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냐시오는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순례자’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1522년 3월 25일 바스크(Basque)인 순례자가 된 이냐시오는 몬세라트(Montserrat)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레사라는 조그만 마을로 들어섰다. 그는 그곳에 있는 구호소에서 단지 며칠만 머물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노트에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11개월이나 머물렀고 그가 지니고

17) Olins JC(1992) : 같은 책, p24.

18)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p165.

다녔던 작은 노트는 바로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되었으며, 이냐시오는 무명의 한 순례자에서 신비가로, 이전의 한 군인에서 학생으로, 사제로, 그리고 중국에는 ‘예수회’라는 수도단체의 설립자가 되었다.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일까? 이 질문은 바로 이냐시오 성인의 개인적인 변환의 과정과 영성(靈性)의 핵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진다. 그만큼 만레사는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 자신의 내적체험을 통한 변환의 과정을 겪으며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 여러 가지 영적체험을 한 곳이다. 이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세속에 얽매어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세속의 기사’에서 ‘하느님의 기사’가 될 영적 힘을 얻었던 것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보아서 이냐시오는 로울라에서 자신의 내면과의 접촉을 통해서 무의식의 원형적인 힘을 만나 새로운 자기실현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만레사에서의 더욱 깊은 내향화를 통해 무의식과의 접촉을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인격의 변환을 이루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만레사에 머무는 동안 성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환상(vision)과 조명(illumination)을 체험했다. 융(1939)도 이냐시오 성인이 회심을 통해 ‘하느님의 기사’가 된 후 혹독한 보속을 하는 가운데 많은 환상들을 본 것으로 소개했다. 융은 특별히 이냐시오 성인의 환상과 영적 조명들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냐시오 성인의 내향화를 통한 무의식과의 접촉은 로울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레사에서 더욱 깊어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만레사에서의 내향화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원형(archetype)적 힘이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인격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의 자서전에서 다섯 가지의 영적 환상(spiritual vision) 및 조명(illumination)체험을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오셨음을 깊이 확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⁰⁾ 첫째,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극진한 신심을 가졌고, 매일 성삼위 각위께 기도를 바쳤다…… 하루는 수도원 층계에 앉아 성모의 성무일도를 염하고 있었을 때, 그의 오성이 승화되더니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가 세 개의 현(弦)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둘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손길로 언젠가 자신을 비추어주셨는데, 그는

19) Olins JC(1992) : 같은 책, p24.

20) Olins JC(1992) : 같은 책, pp37-40.

거기에서 위대한 영신의 환희를 맛보았다. 그가 느끼기로는 하얀 물체를 본 듯도 하고 그 물체에서 몇 줄기 광선이 흘러나오는 듯도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 물체로부터 빛을 내보내시는 것이었다. 셋째, 하느님께서 그에게 위안을 주기 시작하고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효험을 본 후, 그는 형식을 따라 고수해 오던 극단적 행위를 중지하고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앞서 말한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던 중 거양성체 때 새하얀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옴을 심안(心眼)으로 보았다. 넷째, 그는 기도 중에 자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심안으로 보았다. 그에게 나타난 형상은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흰 몸체인데 지체는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만레사에서 그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이것을 보았고, 다음에 파두아(Padua) 근처를 여행하다가도 보았다. 또한 성모님도 비슷한 형상으로 보았는데 지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다. 다섯 째, 한번은 그가 심심에 넘쳐 만레사에서 일 마일쯤 떨어진 성당으로 길을 나섰다…… 길은 강가로 뻗어 있었다. 길을 가다가 심심이 솟구쳐 그는 강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았다. 강은 저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거기 앉아있을 동안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비록 환상을 보지는 않았으나 영신(靈神)사정과 신앙 및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만사가 그에게는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illumination)이 비쳐왔던 것이다. 비록 깨달은 바는 많았지만 그의 오성(悟性)에 더없이 선명한 무엇인가를 체험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영신수련과 영적지도의 대가로 알려진 알폰소(Alphonso, 2006)는 '가장 개인적인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가장 개인적인 것은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²¹⁾라고 했다. 이냐시오는 예순 두해의 전 생애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와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가 받은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

1523년 이냐시오는 로마와 베니스를 거쳐 예루살렘 여행길에 오른다. 그러나 성지 수호를 책임지고 있던 프란치스코회 장상들은 성지에 남아있겠다는 이냐시오의 간청을 일축했기 때문에 이듬해 그는 스페인으로 귀국한다. 이런

21) Alphonso H(2006) : The Personal Vocation,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Rome, p30.

와중에서 마침내 이냐시오는 그가 자서전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to help souls)²²⁾ 정규교육을 받기로 걱정했다. 이런 결심 이후 그는 1524년 바르셀로나에서 라틴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1534년 파리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얻을 때까지 장기간의 면학생활을 시작했다. 이냐시오는 몇 군데 명문대학에서 공부했고, 그 덕분에 당대 유럽을 휩쓸던 사상적, 종교적 사조를 접할 수 있었다. 당대는 그야말로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다. 신세계가 발견되고 식민지 개척이 활발해졌으며, 인문주의의 참신한 도전과 영향이 극치에 달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역시 이냐시오 성인의 사상과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에 틀림없어 보인다.

파리 시절은 그의 면학에 있어서나 예수회의 장래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시기였다. 후에 예수회라는 새 수도회를 발족시킬 동지들을 모은 것도 바로 파리에서였다. 영성생활의 결속, 그들이 품은 지향, 특히 1534년 8월 15일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소성당에서 발한 서원 등은 예수회의 서곡으로서, 그 창립의 길을 닦은 사건이었다. 면학이 끝나갈 무렵 이냐시오와 동지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터키인들의 개종을 위하여 일하기로 걱정하였다.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로마로 가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영혼들을 위한 봉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느 곳에든지 그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²³⁾ 교황의 의향에 자신들을 맡기기로 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이냐시오는 수도회를 창설할 생각은 없었다. 그와 동지들은 단지 같은 목적에 동의했고 뜨거운 열성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혼들에게 봉사하려는 계획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도직 활동에서 오는 규모와 성격이 더욱 커지면서 그들의 활동에 맞는 외형적인 신분과 조직이 필요하게 된 실정이었다. 1539년 봄 로마에 있던 일행들은 그 같은 조직문제에 관해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교황의 공식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계획에 대한 짤막한 약식 문서(Formulas of the Institute)를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콘타리니(Contarini) 추기경의 주선으로 그해 여름 교황에게 제출되어 그해 9월에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잠정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22) Olins JC(1992) : 같은 책, p54 *영혼을 도우려는 이 원의는 회심 체험 후 이냐시오 성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만학의 길을 걸었고 드디어는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23) Olins JC(1992) : 같은 책, p81.

냐시오와 그의 동지들이 제시한 수도회의 목적이 너무도 개혁적 이념을 띠고 있어서 교황으로부터 공식 인가칙서(Regimini militantis ecclesiae)가 나오기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²⁴⁾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냐시오의 동지들은 교황의 명령을 받아 여러 선교지로 분산되어 갔으며 예수회의 사도직 사업은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바로 예수회의 공식적인 탄생을 불러왔다. 회원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도직으로 분주했으며 초창기 동지들 중에서는 오직 이냐시오만이 로마에서 날로 성장하는 수도회를 통솔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냐시오는 1541년 4월에 예수회의 초대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1556년 7월 31일 서거하기까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예수회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대한 이해

1. '영신수련'의 목적과 구조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영신수련'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어떤 무질서한 애착에도 이끌림이 없이 생활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수련들'²⁵⁾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자신의 '영신수련' <일러두기 1>에서 영신수련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신수련이란 양심 성찰과 묵상기도, 관상 기도과 염경 기도 및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 활동의 방식들을 말한다. 산보와 걷기, 달리기가 몸의 운동인 것과 같이 우리 정신이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다.²⁶⁾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자신 안의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바로 보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냐시오 성

24) Olins JC(1992) : 같은 책, p10.

25) 정제천(2005) : 같은 책, p23.

26) 정제천(2005) : 같은 책, p13.

인 자신의 영적 삶의 실제적 체험을 통해 만든 것이다. 이 책은 이론적이거나 철학적,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가 아니며 오직 이냐시오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체험들을 오랫동안 혼자서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성찰한 삶의 열매인 것이다. 따라서 영신수련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겪었던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성인의 ‘이웃 영혼을 도우려는’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신수련에 대한 간략한 안내는 <일러두기 4>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영신수련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4주간에 걸쳐 행하게 된다. 제 1주기는 죄를 고찰하고, 제 2주기는 성지주일까지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 3주기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수난을, 제 4주기는 부활과 승천을 관상하게 되며 여기에 세 가지 기도 방식이 첨부되어 있다…… 영신수련은 대략 30일에 끝내도록 한다.”²⁷⁾ 이냐시오 성인은 매 주간의 길이가 반드시 7일이나 8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정자의 내적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를 지닌 영신수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신수련의 구조는 무질서한 애착과 사욕편정에 사로잡혀 있는 죄스러운 인간에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그분의 삶을 본받음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인간으로의 변환(transformation)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극복하도록 하고(제 1주간), 복음속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제 2주간)의 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열성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 자신의 삶을 재 선택(election)하도록 한다. 제 3주간에서의 그리스도의 수난은 자신의 선택을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려는 열의를 품고 실제적으로 선택하도록 강화시킨다. 그리고 제 4주기는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안목을 지니고 기쁨중에 복음의 완성을 체험하게 하며 이웃을 위해 열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향한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영신수련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 제 1주간 : 죄의 성찰

영신수련은 ‘원리와 기초’, 즉 사람이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람

27) 정제천(2005) : 같은 책, p14.

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봉사하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영신수련 23). 이 원리는 바로 영신수련의 출발점이자 계속되는 과정의 진행원리가 된다. 즉, 세상 만물은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만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1주간은 이 ‘원리와 기초’가 전복된 상태, 즉 죄의 상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애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그 다음의 여정은 ‘원리와 기초’를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격 안에서 재발견하고 이를 따르는 과정이 된다.

2) 제 2주간 :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관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관상 제 2주간은 ‘그리스도의 나라’ 기도로 시작되며, 이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피정자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을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시고,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으며 수고와 영광을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회복을 위해 취하신 방법은 힘과 권능을 내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욕과 업신여김과 가난을 참아 받으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피정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하는 관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삶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과 겸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동참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능동적 자세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관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3) 제 3주간 : 그리스도의 수난과정의 동참

이 주간에서 피정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하여 겐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스도의 체포와 구속, 재판과정, 그리고 군중들의 배척과 십자가의 길 및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관상하게 된다. 피정자는 수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분의 수난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 주간에서 피정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이

웃 사랑을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와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 안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체험을 하는 구간이며, 바로 수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4) 제 4주간 :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지기

이 마지막 주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피정자 자신의 변환(transformation)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고통 중에 나를 따르는 이들은 영광중에도 나를 따르게 하겠다.’(영신수련 95)²⁸⁾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정녕 실현될 것임을 희망으로 맛보게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영신수련을 마치는 이 단계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초대받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큰 영광과 기쁨에 힘입어 나도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총”(영신수련 222)²⁹⁾을 청하게 된다. 이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장면들을 성모님께 발현한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상하게 된다.

부활관상에 이어 피정자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영신수련 230-237)을 통해서 전체 피정을 마무리한다. 우주적 그리스도상이 제시되는 이 관상은 영신수련의 구도상, 성령 강림에 해당한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야 사도들은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서 경험한 사실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도들의 복음전파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같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피정자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경험들에 대한 내적 인식을 구하며 영신 수련의 전체 과정을 총 정리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피정자는 새로운 안목을 지닌 새 인간으로 변화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임무를 받고 파견되는 것이다.

2. ‘영신수련’의 발전과정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분량으로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성인의 하느님 체험에 대한 정수가 녹아있는 책이다. 예수회의 초창

28) 정제천(2005) : 같은 책, pp58-59.

29) 정제천(2005) : 같은 책, pp105-6.

기 멤버였던 폴란코(Polanco)신부는 영신수련의 라틴어판 서문에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쓰여진 과정을 “이냐시오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도와 자신의 내적 생활의 경험, 그리고 영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배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신수련’을 쓴 것이다.”³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로올라에서 그 초기단계가 시작되었고, 만레사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알칼라(Alcala), 살라망카(Salamanca), 그리고 파리에서도 계속 적어 넣고 고쳐졌으며 로마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냐시오는 그의 자서전에서 “영신수련은 단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리라는 생각에서 틈틈이 적어둔 것”³¹⁾이라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신수련의 시작과 발단은 이냐시오 성인이 로올라 성에서 겪었던 회심체험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냐시오 성인의 개인적 수덕체험의 결과가 바로 영신수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휴고 라너(Hugo Rahner, 1956)는 ‘영신수련의 첫 번째 시기’라 불렀고, 이때의 회심체험을 통해서 영의 식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곧 이러한 체험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자신의 삶을 혁신하는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³²⁾ 영신수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영적식별에 관한 규칙들’과 ‘선택을 위한 길라잡이’에 대한 부분도 이 시기에 그 기초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영신수련의 두 번째 발전 시기는 이냐시오 성인이 만레사에 머물던 1522년 3월부터 1523년 2월까지이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오직 ‘하느님의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하느님의 작품이라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냐시오 성인이 처음 만레사로 향할 때는 3~4일간 머물며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영성노트에 몇 가지 체험을 보낼 요량이었으나 만레사에서의 여러 가지 신비체험들로 인해 그가 그곳에서 10개월 이상 머물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의 노트에 적혀 있던 이전의 체험들은 이냐시오가 회심체험 이후 단순히 기도 안에서 체험했던 자신의 느낌들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것이 영신수련으로 바뀌는 것은 바

30) Rahner H(1953) : 같은 책, p88 재인용.

31) Olins JC(1992) : 같은 책, p92.

32) Rahner H(1956) : Notes on the Spiritual Exercises, Woodstock College Press, Washington DC, pp282-283.

로 만레사에서의 체험에 의한 것이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 무렵 “하느님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³³⁾고 기록하고 있다. 이냐시오 성인의 전기를 최초로 펴냈던 라이네즈(Layne) 신부는 “만레사에서 이냐시오는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해졌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영적으로 조명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영들을 식별하고 이런 은총을 통해 이웃에 대한 단순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³⁴⁾고 기록하고 있다.

휴고 라너(Hugo Rahner, 1953)는 이냐시오 성인이 만레사에서 겪었던 신비적 영성의 발전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시작의 단계로 삼위(三位)적 비전을 체험한 신비적인 ‘영혼의 밤’의 과정이다. 이 단계는 내적 영성생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었으나 아주 큰 기쁨을 동반한 마음의 평정상태를 체험한 시기였다. 달리 말해 이냐시오는 그때까지 신비적 은총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눈이 여러 개 달린 뱀 같은 형상’의 비전을 봄으로써 아주 큰 영적 위안을 얻었다. 로올라에서의 체험처럼 이냐시오는 아직도 ‘영적 식별’의 단계에 머문 상태였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극심한 영혼의 고통으로 가득 찼던 시기이다. 이런 상태에서 놓여나 영혼의 평정을 되찾기 위해 이냐시오는 극기와 단식, 그리고 하루에 일곱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고행을 되풀이했다. 이 시기가 지난 후 실제로 신비적 은총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냐시오가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신적 조명이 자신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³⁵⁾ 이를 통해 이냐시오는 다섯 가지 환상과 영적 조명이 비추어지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냐시오 성인이 체험한 카르도네르 강변에서의 영적 조명의 순간을 실제적인 영신수련이 탄생하는 시기로 휴고 라너(Hugo Rahner, 1953)는 보고 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영적 지식들이 마치 자석으로 끌어당기듯이 유기적인 전체성으로 결집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신수련’이라고 부르는 책이 되었다. 영신수

33) Olins JC(1992) : 같은 책, p37.

34) Rahner H(1953) : 같은 책, pp285(재인용).

련은 신학과 초자연적인 심리학의 모든 것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된 열매이다.³⁶⁾ 이러한 영적조명을 통해 그가 자서전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이냐시오는 지금까지 평생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익혀왔던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하느님과 이 세상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다. 영신수련의 '그리스도의 왕국', '두개의 깃발', '선택을 위한 길잡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신비들'이 바로 이 시기의 열매들이다.³⁷⁾

영신수련의 세 번째 발전 시기는 이냐시오 성인이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던, 스페인의 알칼라와 살라망카, 그리고 파리에서의 면학시기이다. 이냐시오가 만레사를 떠난 것은 1523년 초였고, 이때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의 체험들을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휴고 라너(Hugo Rahner, 1956)는 이냐시오 성인이 파리에서 수학하던 시절인 1528년부터 1535년까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첨가되면서 1535년에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기초(foundation)와 죄에 대한 묵상들이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magis)을 위한 정신으로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둘째, '그리스도 왕국'과 '두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이 계시의 도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 셋째,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성서적인 묵상과 교회에 대한 입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넷째, 동료들에게 영신수련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그리스도 왕국'과 '두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³⁸⁾ 마침내 1548년에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라틴어판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2.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응의 이해

1) '영신수련'의 배경에 관한 응의 견해

응(1939)은 1939년 여름부터 1940년 초까지의 세미나에서 동양의 텍스트와 견줄 수 있는 서양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담고 있는 이냐시오의 '영신수

35) Rahner H(1953) : 같은 책, pp50-51.

36) Rahner H(1953) : 같은 책, p52.

37) Rahner H(1956) : 같은 책, p286.

38) Rahner H(1956) : 같은 책, pp286-287.

련(Exercitia Spiritualia)'을 소개했다. 용은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16세기 말경에 쓰였으나, 오랜 종교적, 철학적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 정신의 변환과정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들을 원시종교들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춘기의 '입문의례'에서 치러야 하는 무서운 시련과 고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받게 되는 시련과 종교적 의례들을 통해 인간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변환을 이루어나 간다. 용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바로 인간 정신이 이 세상에서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적인 요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대의 비의(秘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기원 후 622년경까지 유행했던 '엘레시우스'의 비의와, 좀더 오랜 형태로 이집트의 '이시스' 비의, 그리고 아플레이우스(Apleius)의 '황금당나귀'에서의 변환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용(1939)은 이외에도 '카비리(Cabiri)'와 '데메테르(Demeter)'에서 발견되는 입문과정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의례가 '신플라톤'적 사상과 연결되면서 헬레니즘적 혼합주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들이 서양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기독교 안으로 전면 흡수됨으로써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영적 변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³⁹⁾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수도원이 형성되었으며, 수도원의 목적은 평화롭게 진정한 영적변환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세기의 노력들은 아무런 체계나 방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묵상이나 기도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적들은 중세에 들어서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알칸트라(Alacantha)의 'The Little Golden Book'과 아주 널리 읽혔던 토마스 켐피스(Thomas A. Kempis)가 지은 '준주성범(The Imitation of Christ)'이 있는데, 용은 이 두 책을 당시에 유행했던 '현신(divoti)'의 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서적으로 꼽았다. 이 서적들에는 저자 자신의 영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영적여정에서 필요한 기도와 묵상에 대한 지시

39) Jung CG(1939) : 같은 책, p155.

들이 실려 있었다. 융(1939)은 기독교의 이러한 영성서적들이 사라져 간 고대의 비의들이 간직했던 비슷한 단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⁴⁰⁾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⁴¹⁾가 때로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로 가는 적합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책들은 일생을 하느님께 바쳐 하느님과의 영적 일치를 추구했던 당시의 수도사들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뿐만 아니라 '묵상안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처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세기에는 휴고 데 세인트 빅토르(Hugo de St. Victor, 1096-1141)를 대표로 위와 같은 저술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 빅토르(Victor)는 자신이 체험한 영혼, 천사, 그리고 하느님과의 재미있는 내적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융은 이것이 바로 묵상에 대한 서양적인 태도의 전형이며, 동양적인 태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⁴²⁾ 따라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 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것으로 융은 이해했다.

로울라의 이나시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영신수련에서 묵상(meditation)이나 관상(contemplation)기도에 이어 '영적담화(colloquy)'가 뒤따르게 했다. 영적담화는 바로 신(神)적인 상(像)과 갖는 개인적인 내적 대화라고 융은 보았다.⁴³⁾ 13세기에 들어서서 묵상에 대한 규칙들이 훨씬 더 체계화되면서 영신수련이란 용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서술한 그야말로 자세한 교과서가 등장했다. 이러한 수련의 목적은 신성(神性)과의 신비적 합일을 이루기까지 인간의식을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발달시키는 데 있었다. 14세기 말에는 윤리적이고 지적인 비판들이 수도원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쇄신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은 '신심운동(Divotio Moderna)'이라 불렀는데, 'Divoti'는 깊이 있는 내적 신심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운동은 가톨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신교회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5세기에는 이러한 운동이 더 널리 확산되어 당시의 가장 인기 있는 영적신심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당대의 이름난 개혁가로는 독일의 요한 부쉬(Johann Busch, 1399~1479),

40) Jung CG(1939) : 같은 책, p155.

41) 구약성서 창세기 28 : 10-22 참조.

42) Jung CG(1939) : 같은 책, p155.

43) Jung CG(1939) : 같은 책, p155.

프랑스의 장 모부르너스(Jean Mauburnus), 그리고 이태리의 루도비코 바르보(Ludovico Barbo)가 명성을 떨쳤다. 바르보(Barbo)는 분도수도회의 개혁을 지휘했고, 뒤이어 유럽에서 가까운 스페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때문에 스페인 사람인 로올라의 이냐시오가 이런 영적 개혁운동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용은 보았다.⁴⁴⁾ 1442년에 바르보(Barbo)와 그의 동료 수도사들이 스페인의 바르세로나에서 가까운 몬세라트로 와서 그곳 분도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몬세라트에 들렀던 이냐시오 성인과의 인연이 맺어졌다.

몬세라트 수도원의 개혁은 당대의 헌신운동의 중심지였던 발라도리드(Val-ladolid) 출신의 새로운 수도원장이며 이름난 개혁가였던 씨스네로스(Cisneros)를 맞이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넓은 안목을 지닌 정력적인 수도원장을 용(1939)은 이냐시오 성인의 스승으로 보았다.⁴⁵⁾ 씨스네로스는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그 당시의 신심운동과 관련된 여러 권의 서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는 제라드 저볼트(Gerard Zerbolt)의 'Little book on spiritual ascensions'와 장 모부르너스(Jean Mauburnus)가 쓴 'Rose-garden of spiritual exercises'가 있었다. 용은 이냐시오가 바로 이곳 몬세라트의 수도원에서 씨스네로스가 직접 저술한 'Exercises of the spiritual life'를 알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 책은 서양인들의 심성에 맞는 영신의 수련과 훈련에 관한 저술로, 4주간 동안 엄격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었다. 비록 그때까지는 영성훈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으나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신심 깊은 젊은 순례자 이냐시오에게 씨스네로스가 기꺼이 자신의 책을 건네준 것으로 용(1939)은 이해했다.⁴⁶⁾ 이냐시오 영성의 대가인 휴고 라너(1935)도, 이냐시오에게 영향을 준 것은 15세기에 널리 퍼졌던 신심운동(Divotio Moderna)이었으며, 따라서 씨스네로스(Cisneros), 에라스무스(Erasmus), 알론조(Alonzo), 제라드(Gerard), 장 모부르너스(Jean Mauburnus) 등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끼친 영향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⁷⁾

44) Jung CG(1939) : 같은 책, p156.

45) Jung CG(1939) : 같은 책, p156.

46) Jung CG(1939) : 같은 책, p156.

47) Rahner H(1953) : 같은 책, p23.

2) '영신수련'의 일반적 지침들에 대한 응의 견해

융(1939)은 '영신수련'의 일반적인 지침들을 설명하면서 대 피정은 4주간으로 구성되어 한 달간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때 주간이 반드시 7일이나 8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의 분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각 묵상은 안전하게 한 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묵상시간을 줄이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 점은 이나시오도 일러두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융은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심리학, 특히 가톨릭 심리학을 이야기 하면서,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이 영신수련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양적인 자료'를 대하는 정신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의 영신수련에서는 묵상의 일부인 준비기도로서 미리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 갖추어진다. 융(1939)은 스페인 예수회원이었던 이즈퀴어드(Izquierd)의 라틴어 서적에서 '준비자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정신적 기도 혹은 묵상은 이야기된 것이나 행해졌던 어떤 것을 회상하거나, 지성(intellect)을 사용하여 추리해서 그 본질을 가늠해 보고, 서로에 반하는 우연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을 살펴본 후,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추론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력을 부추겨서 건전한 통찰과 올바른 감정을 산출하도록 하여 성서의 교훈들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이다."⁴⁸⁾

묵상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피정자는 묵상할 것에 대한 요점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 또한 묵상할 장소에 이르기 두 걸음 정도 전에 피정자는 자신의 마음상태를 고양시켜, 자신이 구원을 위해 열심히 청구하면 나의 기도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야만 한다. 몸의 자세는 대개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얼굴을 아래로 내리거나 또는 일어서거나 하는 자세가 더 나은 헌신과 집중이 될 것이라 느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신체에 이상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앉아서도 할 수 있다. 융(1939)은 기도에 더 잘 집

48) Jung CG(1939) : 같은 책, p182.

중하고, 자신의 환상(phantasy) 안에 머물거나 그 환상들이 흩어질 때 그것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정자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묵상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 장소, 그리고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묵상 내용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적인 환상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적극적 명상의 과정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같은 것으로 융은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과 은총, 이 기도의 열매를 잘 거두기 위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청원기도가 뒤따른다.

여기서 이미 동양적인 관점과의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융은 보고 있다. 준비과정 그 자체에서 바로 하느님이 요청되는 것이다. 피정자는 상대가 있으며, 더욱이 개인적인 상대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내부로의 향함이 없고, 기본 자료들이 기억이나 의식으로부터 즉 외부에서 취해진다. 예를 들어 피정자는 그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 자체에 대해 정해진 대로 묵상한다. 이 묵상은 하느님을 향하고, 대상을 향한 것이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융(1939)은 이냐시오가 의미하는 묵상은 동양적인 묵상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기도(oratio)라기보다 청원(petitio)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것을 융은 바로 전형적인 서양적 외향성이라고 보았다.⁴⁹⁾ 동양적인 묵상(meditation)은 전적으로 내향적이며 내적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는 외적 대상, 즉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감정도 결코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융은 보았다.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잘 짜여진 틀과 기도의 방법을 피정자에게 제시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기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하느님과의 내적일치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바로 외경과 숭배의 대상이지만, 그분과의 내적 일치를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야 한다. 달리 말해, 하느님은 비록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상(image)이지만, 영신수련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목표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내향적 귀결이라 볼 수 있다.

49) Jung CG(1939) : 같은 책, p183.

즉, 외향적 틀을 이용한 내향적 귀결이며 이것이 바로 내향화인 것이다. 따라서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은 인간을 내적으로 침잠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조용한 피정집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기도의 방법을 통해 피정자를 자신 안으로 침잠하게 이끌어 궁극적인 목표인 하느님과 내적일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용도 인정 한 바와 같이 인간의 내적 변환(inner transformation)이 이루어져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묵상 끝에 담화(colloquium)가 뒤따르며 시작 때나 중간 혹은 담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담화는 단순하게 그리스도, 성모님, 성삼위(Holy Trinity) 또는 다른 신(神)적인 형상들과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이다. 이런 대화중에 피정자는 자신을 창조자와 피조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선생과 학생, 의사와 환자, 친구와 친구, 또는 부자와 거지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담화 끝에 하나의 기도가 따른다 : '만일 피정자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담화를 나누었다면 '아베 마리아'를, 성삼위와 담화를 했다면 '주의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의 담화 끝이라면 '그리스도의 영혼은(Anima Christi)'이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⁵⁰⁾

3) '원리와 기초(principle and foundation)'에 대한 용의 견해

여기서는 이나시오 성인의 중심사상 중의 하나이며, 용이 영신수련의 두 번째 초석이라고 보았던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영신수련 일러두기 23에 나오는 '원리와 기초'의 전문을 소개하겠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50) Jung CG(1939) : 같은 책, p184.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되고 오직 창조된 목적에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⁵¹⁾

이나시오의 원리와 기초는 존재(existence)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관한 일종의 철학적 인류학이다. 이 원리는 더 나아가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융(1950c)은 자아와 자기의 구분을 라틴어의 'quis'와 'quid'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quis'는 개인적인 측면, 즉 자아(ego)를 말하고, 'quid'는 중립적인 자기(self)로 전체성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자아는 한편으로 인과적으로 자기에 속하며 자기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self)를 그 목적으로 방향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융은 자아와 자기의 이러한 측면이 이나시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첫 부분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융은 이나시오의 원리와 기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창조의 목적을 바로 자아(ego)가 나아가야 할 목적, 즉 인간존재가 자신의 전체성인 자기(self)를 달성하고 이를 완성해야만 하는 절제절명의 원리⁵²⁾로 이해하고 있다.

‘사람은 창조되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 시킨다 :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기대되어졌고 우리는 바로 그 기대의 산물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융(1939)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기대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대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감정을 함께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⁵³⁾ 그렇다면 정신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이 기대, 계획, 의향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이나시오는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

51) 정제천(2005) : 같은 책, p27.

52) Jung CG(1950c) : Aion, The Alchemical Interpretation of the Fish, CW, 9-2, Pantheon Books, New York(1959), parag.252.

53) Jung CG(1939) : 같은 책, p214.

기 위험'이라고 표현했다. 융은 이를 분석심리학적 용어로 풀어서 이냐시오가 무의식적 마음에 무조건적 의탁을 천거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냐시오는 이러한 무조건적 의탁의 목적을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의식을 창조해낸 무의식을 존경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과 무의식과의 연결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융(1940)은 '구세주'의 개념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땅의 깊은 심연에서 온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바로 의식 아래에 놓여있는, 즉 무의식에서 온 것으로 본 것이다.⁵⁴⁾ 그렇기에 융(1939)은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무한적인 주관주의라 볼 것에 틀림없지만, 만일 무의식을 '하느님'이라 부른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⁵⁵⁾

만약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주 하느님을 섬기며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험이라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이냐시오의 대답은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표현했다. 이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선언이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단연 하느님 창조사업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간이 창조의 정점인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인간에게 먹거리와 삶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 보다는 이냐시오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인간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을 섬기고 찬미하는 데 있다면 이를 상징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테의 '신곡'의 마지막 '천국'편에는 화사한 흰 장미로 장식되고 온갖 천사와 성인들로 둘러싸인 삼위일체의 상징과, '장미의 창'에서 네 명의 복음사가

54) Jung CG(1940) :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1989), parag. 150.

55) Jung CG(1939) : 같은 책, p215.

들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의 왕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장미의 창(Rose Windows)’을 융(1939)은 바로 만달라의 상징⁵⁶⁾으로 보았다.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신비로운 꽃(mystical flower)’은 바로 신성(神性)의 자리인 것이다. 융은 중세기에 많이 회자되었던 이러한 상징에 대해서 이냐시오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단테는 여러 개의 원으로 구성된 원형의 천국을 상징했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장미가 놓여졌다. 이런 상징은 동양의 만달라, 즉 마법의 원으로 둘러싸이고 그 가장자리에 연꽃이 있는 만달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융(1939)은 영신수련의 목적이 이런 ‘비밀의 왕국(secret kingdom)’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 동양의 목적과도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곧 부처의 자리에 이르는 것, 만달라의 중심, 아트만(Atman)의 상징, 바로 자기(the Self)에 이르는 길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융의 해석은 바로 이냐시오가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으로 보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져 있다.⁵⁷⁾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열매가 익기 위해 존재한다면, 즉 자기(self)라는 존재가 본래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융은 그 과정을 이와 같이 ‘단순히 되어가는 존재의 정신적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이 세상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즉, 자유롭게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거나 거절하기 위해서는 불편심(indifference)의 정신이 필요함을 이냐시오는 깊이 느끼고,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인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불편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프르지와라(Przywara)는 하느님을 ‘대극의 화해’의 상징으로도 보았다. 따라서 인간도 대극을 합일시키는 그만큼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 하느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대극과의 접촉에 있어서 조화롭지 못하고 끊임없는 부조화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인간이 하느님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자신 안의 부조화는 중지되고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느님의 모상의 상태(condition)를 지닐 수 있게 되

56) Jung CG(1939) : 같은 책, p217.

57) Jung CG(1939) : 같은 책, p220.

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하느님께 의존된 그만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질(essence)은 곧 신(神)의 본질이 된다. 이 점에서 동양적 사고와의 연결이 이루어져, '나는 아트만(Atman)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융(1939)은 이해하고 있다.⁵⁸⁾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함의

이 세상 부귀영화와 명성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헛된 욕망을 지니고 살았던 '세속의 기사' 청년 이나시오가 자신이 품었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기사'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요 은총임이 분명하지만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무의식의 원형적(archetypal)인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은 바로 자신이 만났던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려는 사랑의 정신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나시오가 로올라 성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분열된 인간정신으로서의 의식 안으로 서서히 형이상학적 세계의 틈새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빛과 어둠 사이의 갈등이 드디어 내면 세계의 격돌로 비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융(1948)은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이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진 영신수련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내면적 갈등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았다.⁵⁹⁾ 그렇기에 융(1950a)은 기술적으로 변환(transformation)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양의 요가와 비견할만 한 도구로 서양에서는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들고 있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방법들이 원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변환의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았다.⁶⁰⁾ 이처럼 서양에서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신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켜

58) Jung CG(1939) : 같은 책, p229.

59) Jung CG(1948) : Alchemical Studies, The Spirit Mercuriu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1976), parag. 293.

60) Jung CG(1950a) : 같은 책, parag. 232.

동양의 요가에 비견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의학에서는 정신 치료(psychotherapy)의 형식으로,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방법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으로 융(1936)⁶¹⁾은 이해했다.

저자는 이냐시오 성인이 로올라 성에서 하느님을 깊이 만난 이후 ‘세속의 기사’에서 ‘하느님의 기사’로 다시 태어나는 삶의 전 과정이 바로 한 개인의 ‘개성화과정(individuation process)’, 즉 자기실현의 과정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이냐시오 성인이 저술한 ‘영신수련’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이는 회심을 통한 새로운 변환(transform)의 과정이 바로 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신수련’은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느님의 은총 체험이며,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이냐시오가 자신의 내부와 접촉하면서 무의식의 원형적인 힘을 만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나간 자기실현의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영신수련의 전 과정을 한 인간의 개성화(個性化)과정, 즉 ‘자기실현’이란 변환의 틀 안에서 분석심리학적으로 재조명해보려 한다.

영신수련 제 1주간은 ‘원리와 기초’ 즉 사람이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영신수련 23).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첫째주간은 사람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나가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주간의 목적은 바로 ‘원리와 기초’가 전도된 상태, 즉 죄(罪)의 상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애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데 놓여 있다. 그렇다면 분석심리학적으로 보아 죄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갈등과 대극으로 분열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런 분열의 상태를 지양하고 대극의 조화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하는 당위성과 마주치게 된다. 융(1939)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영신수련에서 천사들의 죄와, 원조 아담과 이브의 죄를 묵상하는 가운데 보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천사가 범한 죄의 상태란 바로 인간

61) Jung CG(1936) :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Yoga and the West.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1989), parag. 873.

의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전의식(pre-conscious)의 힘 간에 일어난 균열인 것이며, 무의식의 경향 안에 모순적 대립이 생겨난 상태로 보여 진다.

인간은 자아의식이 발달되기 전에는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척들의 심리로 뭉쳐진 본능적이고 집단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태초부터 천사와 악마에 비견할만한 모순적 대립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바로 모든 인간 안에 대극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도 바로 이러한 대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이미 천사의 타락 안에서 보이며 그 이면에는 결국 신성(神性)의 두 가지 본성(本性)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용은 보았다. 따라서 인간창조의 목적을 용(1951)은 자아(ego)가 나아가야 할 목적, 즉 인간의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전체성인 자기(Self)를 달성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용은 자아(ego)는 개인적인 측면이며 자기(self)는 전체성(全體性)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사실로 구분하면서, 자아(自我)는 인과적으로 자기(自己)에 속하며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自己)를 그 목적으로 방향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달리 말해서 용은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참된 목적이 바로 의식적인 자아(ego)가 자신 안의 무의식을 통합하여 이루게 되는 인간의 전체성인 자기(self)에의 달성, 즉 개성화의 과정(individuation process)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용(1939)은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개인의 내적 변환(inner transformation)을 통해서 개성화에 이르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양의 요가와 비유할 수 있는 서양적 변환의 도구로 간주한 것으로 저자는 이해하고 있다.

영신수련 제 2주간은 제 1주간에서 형성된 ‘새로운 태도’를 바탕으로 ‘원리와 기초’를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격 안에서 재발견하고 이를 따르는 과정이다. 이 주간의 첫째 기도에서 이나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에 대한 관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제 2위 성자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용(1950b)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바로 ‘자기의 원형’으로 분명하게 예시될 수 있는 것⁶²⁾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하느님이시며 인간(人間)이 되신 그리스도는 분석심리

62) Jung CG(1950b) : 같은 책, parag. 70.

학적으로는 자기(self)가 인간의 자아(ego)에 다가와, 인간의 자아(ego)가 진정한 인간의 요소인 자기(自己)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人間)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자기실현(自己實現), 즉 개성화(個性化)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구원(救援)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이 달성해야 할 '자기실현' 즉, 전체성(全體性)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또한 융(1939)은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현현(顯現)은 바로 인간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으며, 언제 신(神)적 인간(Anthropos)으로서 하늘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주간에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관상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끈다. 분석심리학적 견해로는 바로 자아가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자기(Self)를 만나는 과정인 것이다.

제 3주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수난과정에 동참함으로써 고통과 죽음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단계이다. 피정자는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체포와 구속, 재판과정,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관상하게 된다. 이 주간에 피정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아야만 한다. 융(1939)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통(passion)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이며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서양인들은 개성화의 심리적 과정에서 고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고통당하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 그분의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그분의 신(神)적인 형상(form)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기의 형상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심리학적으로 개성화의 과정에 따르는 고통의 의미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따라서 융은 병(病)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성이라 설명했으며,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노이로제가 생겨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 치유될 수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구원될 수 있으며 분석심리학적으로는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자아의 분열에서 벗어나 전체성(全體性)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독교 교의에서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며 동시에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부쳐지는 '고통당하는 종'으로 선언된다. 그러므로 융(1939)은 자기(self)를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신(神)적 고통의 인식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형상이 되고, 인간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만 자기(self)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달리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대극의 합일(合一)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이며, 분석심리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기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융(1939)은 그리스도의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몸은 바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모성적(母性的)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전통적으로 양성적(兩性的)인 존재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성성(兩性性)이 대극(對極)을 아우르는 초월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대극이 존재함을 우리는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模像)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 안에도 대극이 있으며 이것이 초월적 기능을 통해 화해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융은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리스도는 대극의 화해를 상징하는 십자가 그 자체, 즉 모든 인류의 전체성(全體性)을 자신의 몸 안에 포함하는 자기(Self)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구원(救援)으로 즉, 자기(自己)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융은 이해했다.

제 4주간은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ego)를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즉 전체성을 갖춘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이전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re-birth)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⁶³⁾라고 고백하

63) 갈라디아서 2 : 20 (공동번역 성서).

고 있다. 이는 바로 고통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 자신도 다시 태어나게 되어야만(re-birth)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주간의 관상에서는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모님과 의 상봉에 관한 장면도 주어진다. 융(1939)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의 대면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근원(根源)이기 때문이다. 분명 어머니는 그가 낳음받고 영원히 서 있을 대지(大地)의 상징인 것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대지는 우리가 서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의식이 창조된 무의식적 정신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근원인 어머니와 무의식 안에서 대면한 것⁶⁴⁾으로 융은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상봉장면을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으로 30일 피정이 마무리되는데 융은 이 관상의 분석심리학적 함의를 특히 중요시했다. 이 관상에서는 먼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날까지 간직해 오신 창조와 보존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기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肉化)하여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느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지 보는 것이다. 융(1939)은 이 부분에서 신성(神性)의 창조적인 토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현상을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의식의 기능에 의존되어 있으며 무의식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⁶⁵⁾인 것으로 융은 보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은 바로 과학적 진실에 동의하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이 오직 의식(意識)이나 이성(理性)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때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 관상하는 것이다. 융(1939)은 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의식이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다음 말을 한 마디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무의식이 내 안에서 어떻

64) Jung CG(1939) : 같은 책, p261.

65) Jung CG(1939) : 같은 책, p259.

게 작용하느냐에 의존되어 있고, 이를 형이상학적으로는 바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 아닌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융은 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로부터 연원하는지를 관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이런 사랑을 찾은 사람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것이 바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의 궁극적 목표이다. 융은 이를 통해서 피정자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환(transform)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환은 바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빛으로 조명해 봄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바로 전체성(全體性)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주간에서 기도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하는 신원(identity)에 맞추어지는 것이므로, 영신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바로 피정자 자신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살았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imitatio Christi)'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십자가, 즉 대극의 갈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융(1939)은 이해하고 있다.⁶⁶⁾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과 육(肉)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더불어 자신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갈등도 함께 지고 가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갈등은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삶은 전체성의 관점에서 살아내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고통과 완전히 개혁적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하나의 전형(pro-totype)이며, 자신 안의 대극을 통합하기 위해 고심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이다. 융(1939)은 인간이 전체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자신의 삶 안에서 그대로 구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명상자의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되어 깊이 있게 살아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명상자의 삶 사이에 융합(fusion)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수련(exercises)은 명상자가 전체성

66) Jung CG(1939) : 같은 책, p258.

의 삶(life as a totality)을 살 수 있게 만들게 된다.”⁶⁷⁾ 이때 우리는 바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은 바로 신앙인의 그리스도화(化), 즉 전체성(全體性)인 자기(self)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용(1939)은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통한 수련의 과정이 바로 자아가 자기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체성, 즉 개성화(個性化)에 이르는 과정과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 길은 바로 고통과 죽음을 통한 재생(re-birth)의 길이며, 용(1934)이 도(道)라고 부른 ‘완성, 전체성, 자신의 종착지에 이르는 것,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이고 마침이며, 모든 사물 안에 내재하는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실현(實現)하는 길’⁶⁸⁾로 보여진다.

나 가 며

인간의 삶은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다. 예수회원으로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삶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지금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나에게는 그 힘이 바로 ‘사제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온 하느님의 힘이요 은총으로 다가온다.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은 이런 하느님의 신비로운 힘을 만나 이 세상 부귀영화에 얽매어 있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세속의 기사’에서 ‘하느님의 기사’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나시오 성인의 하느님 체험, 그리고 그 힘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었던 삶의 여정이 바로 그의 영신수련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그런 하느님의 신비스런 힘을 나는 용이 말하는 무의식의 원형(archetype)적인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변환(transform)을 통해 하느님, 즉 내면적인 자기(Self)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서양적 변환의 도구’라는 용의 견해를 지금까지 고찰해 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나시오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

67) Jung CG(1939) : 같은 책, p257. 용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상가(meditator)란 바로 피정자(retreatant)를 의미하며, 수련(exercises)이란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이르는 것이다.

68) Jung CG(1934) : 같은 책, parag. 323.

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안에 깊이 받아들여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자신의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하여 개성화(個性化)에 이를 수 있다는, 삶의 전형(prototype)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힘, 즉 '그리스도의 영혼'에 취해서 '세속의 기사'에서 '하느님의 기사'로 뒤바뀐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느님 체험'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영신수련'을 저술했다.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즉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깊이 도와주기 위한 과정에서 무의식의 거대한 힘과 마주쳤다. 그래서 융은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⁶⁹⁾라고 말년에 저술한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 하느님의 힘과, 무의식의 힘을 어떻게 함께 접합시킬 수 있을까? 이냐시오는 무의식의 심리학적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16세기에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융은 19세기에 태어나 기독교회의 틀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하느님과 무의식의 힘을 함께 체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융은 사람들이 자신을 극단적인 주관주의자로 몰아부칠 위험을 무릅 쓰고 '하느님의 자리에 무의식을 옮겨놓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바로 하느님의 힘을 포함한 거대한 원형(archetype)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었다.

참고문헌

- 야훼(Jaffe, A.) Ed.(1962) : 《回想, 꿈 그리고 思想》(이부영 역, 1996), 집문당, 서울.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정재천(2005) :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이냐시오 영성 연구소, 서울.
 Alphonso H(2006) : The Personal vocation.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Rome.
 Becker KL(2001) : Unlikely companions : CG Jung on Spiritual Exercises of Ignatius

69) Jaffe A Ed(1962) : 같은 책, p17.

- of Loyola. MPG Books Ltd., England, Bodmin.
- Brou A**(1949) : Ignatian Methods of Prayer(Translated by Young, W. S.J.). The Bruce Publishing Company, Milwaukee.
- Jakson CJ**(2006) : "Something that happened to me at Manresa" Vol. 38/2,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Jesuits, St. Louis, Missouri.
- Jung CG**(1921) : Psychological Types. C.W. 6,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0).
- _____ (1934) :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W. 17,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1977).
- _____ (1936) :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Yoga and the West.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1989).
- _____ (1939) : Modern Psychology. Vol. 3-4, Notes on Lectures, Zurich(1940).
- _____ (1940) :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1989).
- _____ (1944) :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The Holy Men of India.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1989).
- _____ (1948) : Alchemical Studies, The Spirit Mercuriu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1976).
- _____ (1950a) :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ncerning Rebirth. C.W. 9-I, Pantheon books, New York(1959).
- _____ (1950b) : Aion, Christ, a Symbol of the Self. C.W. 9-2, Pantheon Books, New York(1959).
- _____ (1950c) : Aion, The Alchemical Interpretation of the Fish. C.W. 9-2, Pantheon Books, New York(1959).
- Meissner WW**(1992) : Ignatius of Loyola: the Psychology of a Sai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Olins JC**(1992) : St. Ignatius Loyola.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 Rahner H**(1953) : The Spirituality of St. Ignatius Loyola. The Loyola University Press, Chicago.
- _____ (1956) : Notes on the Spiritual Exercises, Woodstock College Press, Washington DC.
- _____ (1968) : Ignatius the Theologian. Biddles Ltd, Great Britain.

Shim-Sŏng Yŏn-Gu 2010, 25 : 1

〈ABSTRACT〉

A Jungian Perspective on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Jung Taek Kim *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nvestigates Jung's analytic implications of the Spiritual Exercises by St. Ignatius of Loyola. The Exercises is referred to not only as the tool for transformation that transformed Ignatius from a soldier of the world into a soldier of God and led him to a completely changed life but also as a tool which galvanizes self-realization, i.e., individuation process, in which a faithful experiences the presence of God in his life and is in search for himself in a new way. The interest in the Exercises regarded as a Western version of Yoga of the East which is a tool for transformation led Jung to give a series of 20 lectures on the Exercises in a seminar held in Zurich from 1939 to 1940. Curiosity about Jung's understanding on the Exercises provokes my desire to step into this research.

The Exercises is a book for spiritual exercises that prepare and dispose one's soul to rid itself of all disordered attachments and to order one's life. The Exercises is made up of four Weeks. The First begins with ‘Principle and Foundation’ which illustrates what human beings are created for. It leads retreatants to rid themselves of disordered attachments and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life by the consideration and contemplation of sins as the subversion of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The Second is the period in which retreatants accept Christ as the Master of their lives through the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of the life of Christ. In the Third, retreatants take part in the salvation history of Christ not onl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assion of Christ but also by incorporating the Passion into their lives. The Fourth aids retreatants to undergo their transformation and experience it deepl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new life of Christ who by His resurrection overcame death.

In conclusion, Jung viewed the Exercises as a Western tool which plays the

similar role of Yoga of the East which engenders inner transformation. The four-week-long retreat helps retreatants to meditate on God who unifies everything and is Himself/Herself the perfect union or the unity so that imperfect retreatants are given opportunities to undergo complete metamorphosis into the immortal, indivisible, and impeccable God. Jung understood that this metamorphosis leads human beings to the totality, that is, the genuine self as the image of God. The author interprets that it is the transformation that the Exercises tries to attain, which resonates with individuation, the key element of analytic psychology.

KEY WORDS : Ignatius · Spiritual exercises · Analyt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Korea*